

안식하신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개역, 창세기 2:1-3]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개역, 출애굽기 20:8-11]

주 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핵심을 보면 안식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규정을 짓고 무엇이든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뭐냐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가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일이나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거죠. 특히 여자들은 안식일 전날 바늘을 안 잃어버리도록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바늘을 잃어버리면 안식일에 바늘을 찾고 싶어도 그것이 일이나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바늘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안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긴한 바늘을 잃어버렸다? 당장 찾아야 하는데 이게 일이나 아니냐는 겁니다. 녹슬기 전에는 결론이 나아 할 텐데... 아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안식일에 아이를 낳아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안식일을 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주의를 많이 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로 논쟁을 했다가 얼마나 논쟁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일이나 아니냐 그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일이다. 그러나 옷에 꿰매서 붙이고 다니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쓸려면 옷에 꿰매서 다녀라. 이런 식이었죠. 이런 건 사소한 문제지만 심지어 전쟁 도중에 전쟁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전쟁 도중에 안식일이라고 전쟁을 중지해버린 채 전원이 물살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 한번 그런 일이 있는 후에 다음 번에는 태도를 바꾸어 용감하게 싸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덕을 본 적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군인들을 징집해 갈 때 유대인들은 포기했습니다. 징집을 안 했습니다. 전쟁 중에 잘 싸우다가 안식일이다 하고 손 놔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징집에서 면제되기까지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보존해주는 역할마저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멸종되지 않고 끝없는 박해를 이기고 오늘의 유대인답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좌우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러 나갔다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은 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만 기를 쓰고 지킨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큰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탓도 있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안식일을

완전히 파괴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시급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라든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문제는 사실은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하루 쉬어서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는 일인데도 예수님은 많은 대적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굳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미룰 수 있음에도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치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었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셈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에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안식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본문의 이 짙막한 구절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의 뜻은 편안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식은 아무 것도 안 하고 폭 쉬는 것입니다.

주일에 편안하십니까? 주일에 저도 새벽부터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다 보면 어디서 한숨 잤으면 싶은데 잠만한 시간도 없고 공간도 마땅치 않지만 잘 버티는데 이유는 워낙 단련이 잘 돼 있어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루종일 교회에서 뛰어다니다가 저녁예배 마치고 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면 올라오는 길이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졌는데 그 길을 제대로 못 올라가서 길 옆 잔디에 누워서 하늘 쳐다보면서 히죽히 죽 웃다가 쉬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업을 거의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계속 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일의 과로 때문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가르친 덕에 저렇게 착하고 예쁜 부인을 얻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것은 아예 버릇처럼 되어서 잘 견딥니다. 그게 좋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농담 삼아서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이 뭐냐? 발음을 조금만 잘못하면 됩니다. 주일은 주기는/죽이는/ 날이다.

그러면서 주일이 안식일 아니냐? 안식일! 폭 쉬는 거 아니냐? 폭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루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다 이러면서도 참 열심히 뛰어다녔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 일 맡으신 분들은 주일이 죽이는 날 맞습니다. 예배, 기도, 회의는 또 얼마나 많아요! 주일학교, 성가대, 전도회... 그럴 때에 주일은 이게 아니고 폭 쉬는 날인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폭 쉬어야 된 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육일 동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칠일 날 폭 쉬셔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폭 쉬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피곤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예,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일 동안 큰 일을 해냈더니 ‘아, 피곤하다.’ 그래서 좀 쉬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쉴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야 말씀밖에 더 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해 버렸으니까 별로 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좋은 대답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말씀 하나로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말하는 건 어디 쉬운지 아십니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는데 지장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말, 필요한 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말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많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가 꼭 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만 생각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어 가면서 이런 문제를 머리 속에 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쉬셨을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성하셨으니까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완성하시고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할 일을 다 해놓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이 사실은 창조의 꽃입니다. 제일 멋진 작품입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즉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기에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따라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도 많이 듣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참 조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한가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냐 즐겁게 하는 거냐는 사실입니다. 잘못 아시는 분은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대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뭐죠? 어떤 상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입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조금 바뀌어서 물어볼까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환영 준비한다고 기쁘게 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 조금만 미루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고 연기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요? 우리 교회에는 워낙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할 겁니다만 다른 교회나 안 믿는 분들은 어떡하죠? 조금만 더 연기해 주십시오. 왜요? 우선 그 동안 회개할 게 많으니까 회개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지금 오시면 아무래도 내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아니면 지금 오시면 내가 칭찬 듣기보다는 벌 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좇아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요?

아뇨!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관

계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자녀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을 때가 있죠? 없습니까?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마, 전혀 안 그러면 제외하고요. 얼마나 기쁘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분이요? 그럴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니까? 너 빨리 커서 돈 벌어서 나한테 좋은 선물 내 놔라. 그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 애가 “할머니가 워낙 잘해 주셔서 커서 돈 벌어서 할머니 좀 잘해 드려야겠는데 내가 커서 돈 벌 때까지 할머니가 살아 계실까?” 이러더라구요. 제일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해 볼래? 신문이라도 돌려서 할머니 기쁘게 해 드려라. 재미로 그런 소리를 한번씩 합니다. 할머니 뭐 해주기 위해서 애가 신문 돌린다고 쫓아다니면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 해줘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녀답게 잘 자라가기만 하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그 자체로 한없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현금하는 게 아깝거든 하지 마세요. 왜요? 내 이거 아까워서 달달달 떨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받아두고 아이고 고맙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어지거든 그 때 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해라. 잔소리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은 듯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주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반가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굉장한 부자란 뜻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일이나 사소한 일에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더 여유를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쪽 구석에 보면 오토바이 한 대 있죠? 누구 건지 아시죠? 저 오토바이가 왜 저기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집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보세요. 저거? 저기 안 있습니다.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 집에 시동이 걸리거나 말거나 차가 두 대쯤 된다 그러데요. 차가 두 대나 되니까 오토바이가 집에도 못 가고 교회 마당에 밤낮없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집사님! 치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가 두 대나 있으면 오토바이 저거요. 별로 시세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돈도 없고, 애들은 시원찮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웬만한 세상 일은 마당에 처량하게 서 있는 저 오토바이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렌트를 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이럴 때 빨리 아멘하시는 분은 부인에게 점수를 엄청나게 탄 겁니다.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남의 남편 쳐다보고 이런 저런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남편이 훨씬 더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인식한 분입니다. 이 이상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우

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조그만한 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싸운다는 것을 아이들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싸움을 해요? 예. 어른들도 가끔 싸워요. 어른들은 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른들이 싸울 때 큰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오. 잔잔한 것 가지고 싸울 때도 많아요. 목숨걸고 싸워야 할 만큼 큰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라면 웬만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일을 저 모양으로 할까? 저거는 왜 속이 좁아서 저 모양일까? 짜증스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능히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란 걸 기억합니다. 그 기뻐하는 중심에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안식하며 푹 쉬시는데 그 안식을 깨버리는 거죠. 누가 깼어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가 깨버려요? 아담이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아담이 깨버리니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휴식을 그만 두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깬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떠나버린 인간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재창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재창조 사역을 위한 뿌리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이것은 나무와 잎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신 재창조 사역의 꽃과 열매에 해당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안식은 먼 훗날에 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안식의 의미가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됐다 해서 고쳐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마무리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바로 우리에게 재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또 다른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되신다는 그 의미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잘 지킬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아 내일이 주일이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정신없이 이리 저리 쫓아다니다가 “어 주일이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또 주일이야?” 이런 분 안 계시나 모르겠어요.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냐?”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일학교라도 맡아 놓으면 “아이고 공과준비 안해놨는데 벌써 또 주일이야?”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잘 닥치는 일이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주일이 닥쳐오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이번 주일을 어떻게 때우고 지나가나?” 고민이 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병희 집사님은 당분간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찬양대 지휘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만 생각하면 참으로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신 날이란 겁니다. 이런 기쁨이 주일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니까 앞 뒤 이야기는 다 빼먹고 예수님은 뭐하러 또 부활까지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40일 새벽기도. 1년 중 어느 때 하죠? 꼭 부활절이 다가오면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부활하셔서... 이때만 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아이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학교 불났단다 그래서 그 학교 당분간 수업을 못한다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나요. 우리 학교는 불 안 나냐? 좋은 생각이지요? 병원에 입원 한번 안 해본 아이들은 옆집 애가 입원하니까 친구들 위문가는 것 보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소원인 애들도 있어요. 나도 병원에 입원 한번 해봤으면... 철없는 애들 생각입니다. 제 조카 애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할 때 큰 병은 아니지만 수술한다고 날 잡아 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가봐요. 목욕을 작성했더라구요. 너는 몇 일 날 뭐 사오고 너는 몇 일 날 뭐 사오고... 이걸 꼭 짜놓고 병원 들어가더라구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에 이 주일날 기억해야 할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자꾸 신경 쓰고 있으면 주일이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든 일입니다. 주일 참 빨리 오죠? 좋아서 빨리 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뭐부터 생각이 나야 합니까? 주일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셨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해 버린 인간을 향해서 독생자까지 희생 시켜가면서 다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이것은 재창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단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일이란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안식일의 상징입니다. 예표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 드리는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지내게 될 예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이것부터 먼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일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잘 잊고 삽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죠? 일요일 아닙니까? 주일을 일요일했다가 우리 목사님께 큰 일 날려구요. 여기 안 계시네요. 주일을 자꾸 일요일로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도중에 쿡쿡 지적을 해도 습관적으로 나오니다. 주일하고 일요일하고 같은 거 아니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현충일 뭐 하는 날이죠? 현충일 날 뭐해요?

노는 날.

놀아요? 현충일 노는 날 아닙니까? 현충일 노는 날이라고 했다가 누구한테 잘못 걸리면 맞아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는 현충일만 되면 지금도 국립묘지로 가세요” 갔다 오셔서 하루 종일 슬퍼하십니다. 그 분 앞에서 현충일은 노는 날 하고 웃었다가는 난리 나죠. 현충일은 웃는 날 아니예요! 현충일에 모여서 단체로 놀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원래 뭐하는 날이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국을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 했던 그 날이 현충일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현충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노는 날이란 생각만 남아 있는 거죠. 현충일이 되면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엄숙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국민의 절반이라도 될까요? 어렵도 없을 겁니다.

현충일은 원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영어로 휴일을 뭐라 그러죠? *Holiday*라 그러죠. 그게 원래는 *Holy day* 입니다. *Holy day*가 뭐예요? 거룩한 날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거룩한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노는 날이 되어버렸죠. 노는 날의 본래 의미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주일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주일의 의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일을 뭐처럼 느끼느냐? 그냥 일요일처럼 느껴요. 주일이 뭐냐? 일곱날 중에 첫째날로 생각하시죠? 첫째날이 있고 그 다음 둘째날이 있고 셋째날이 있고 그러면 그 일곱날이 의미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이 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집사 시절에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제 전도사 이야기니까 조금 들어 줄까 싶어서 한번 해볼랍니다. 5월 5일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이 주일에 주인공은 누구죠?

.....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도 빠르고 말끼를 잘 알아 들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린이 주일이란 말을 풀이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앞에 어린이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를 위한 주님의 날.

아, 어린이를 위한 주님의 날.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되나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지 이 앞에 다른 어떤 사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인데 여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여요? 어린이 주일. 그 다음 뭐예요?

아버이 주일.

부모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 세상에 주님의 날을 빼앗아서 그 앞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감격이 스며있는 그 날에 주님 대신에 다른 분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우리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어마어마하죠. 평생 애써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주일. 그 다음에는요?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이요? 5월 달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섭섭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린이 주일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구요. 왜요? 주님의 날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주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특별히 어린이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주님의 날입니다. 어린이가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고, 스승이 소중해도 주님의 날 앞에 붙일 만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영어 애길 해서요. 영어는 소유격이 두 개가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란 말은 소유격 두 개가 겹칩니다 (Children's Lord's day). 어린이의 주님의 날? 그러면 날은 하나고 주인공은 둘이고... 말이 잘 안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이 주인되시는 날이라는 생각보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가리키는 말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딱쳐오는 5월에 어떻게 해야 될는지 대책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합시다. 정, 용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쓰더라도 주인공은 어린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를 특별히 좀더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날!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게 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없이 힘으로 어떻게 해볼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